

The effect of senior academic programs by type on life satisfaction

Myoung-Dong Son*, Cheon-Gyu Park**

Abstract

In this paper, we propose that it is necessary to expand the programs in the future, and it should be possible to activate and to participate the programs continuously, because the higher the participation in leisure program is, the higher life satisfaction. The Korean Senior Citizens Association has a branch in each province and is used as a place where voluntarily provide friendship activities, hobbies for elderly people aged 65 and information exchange with other leisure activities. However, it was considered to be only a cursory space a few years ago, unlike the activation of leisure programs for the elderly welfare center.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investigate the effect of satisfaction of leisure program by type on life satisfaction of users who have experience in elderly university. The subjective health status and the residential type of participating elderly people differ in their life satisfaction. Therefore, it is important for the elderly to have regular health checkups and to maintain a stable residential style. And also, the experiment results show that life satisfaction was higher when leisure program use satisfaction was higher - especially, satisfaction with health program and health care program was higher.

▶Keywords :The Korean Senior Citizens Association, Elderly university, Leisure program, Life satisfaction, Health status

1. Introduction

우리나라의 경제는 산업화와 도시화가 급속하게 진행되면서 경제적 풍요와 최첨단 기술의 혜택을 누리면서 우리나라의 경제는 선진국 수준으로 발전하였다. 이러한 변화로 인해 기본적인 복지 문제는 많은 부분 해결되었다. 그러나 여전히 이기주의, 개인주의가 만연하여 물질만능주의, 인간소외를 야기시켰고, 보건위생의 개선 및 의료기술의 발달은 인간의 평균수명을 연장시켰다. 이로 인해 고령화문제가 야기되었다. 또한 핵가족화와 노인부양 의식의 약화로 인해 노인단독가구의 비중이 증가하고 자녀 동거율이 급감하는 현상이다. 이러한 가족의 변화를 통해 노인문제는 이제 더 이상 가족의 문제가 아닌 사회적 문제가 되었다.

통계청[1] 자료에 의하면 2010년 인구주택총조사에서 총 인구는 47,99,761명 이었으며 65세 이상의 인구는 5,424,667명으로 조사되었다. 이것은 이미 5년 전 65세 인구 11.30%로 고령화 사회에 있었다는 것을 뜻하며 2015년 추계인구

50,617,045명, 65세 이상 6,653,943명 추계 13.15%로 고령 사회에 근접, 2017년 14.04%로 고령사회 진입, 2027년 21.93%로 초고령사회로 진입이 예상된다는 것을 뜻한다.

이처럼 노인 인구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인생주기에 있어서 은퇴이후 기간이 차지하는 비중이 높아지면서 노년기의 여가활동에 대한 관심이 증대되고 있다. 노년기의 여가활동은 만성화된 무료함과 정신적·정서적 고통을 경감시켜 줌으로써 노인의 신체 및 정신건강과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긍정적인 결과를 기대하고 고령화 사회를 맞아 길어진 노년기가 부각되면서 노인의 문화 오락의 욕구를 충족케 하고 또한 노인의 특기와 관련하여 노인의 인격향상에 도움을 주고 노인의 욕구를 충족시키는데 영향을 준다고 할 수 있다.

우리나라 노년층의 여가활동참여자만을 대상으로 할 경우 문화예술관람 및 창조적 활동, 복지관 프로그램 등 자기 개발과 같은 적극적인 여가문화활동에 참여하는 시간도 결코 낮은 수준[2]은 아니다. 따라서 이들의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다양

• First Author: Myoung-Dong Son, Corresponding author: Cheon-Gyu Park
*Myoung-Dong Song (godenjoy1@hanmail.net), Kwangju Women's University, Professor.
**Cheon-Gyu Park (cgpak@kwu.ac.kr), Kwangju Women's University, Professor
• Received: 2016. 11. 23, Revised: 2016. 12. 05, Accepted: 2016. 12. 12.
• This paper was supported(in part) by Research Funds of Kwangju Women's University in KWU116-015

한 여가활동의 기회 제공과 프로그램 내용의 고급화[3]가 필요하다. 무엇보다도 2010년부터 2018년까지 은퇴가 대량으로 예상되는 시점이어서 근간에 노인복지관, 경로당, 대한노인회 등으로 유입될 것이다. 이는 베이비부머를 포함한 노년세대가 이전 노년세대보다 더 고급문화생활, 고급식생활, 취미활동을 갖고 자신의 긴 노후의 삶에 대해 욕망과 높은 기대수준을 갖고 누리기를 원한다는 결론을 도출할 수 있다.

우리나라 노인복지법 제36조에 의하면 노인여가복지시설로 노인복지관, 경로당, 노인교실로 정의하고 있다. 이중 대한노인회는 각 지방에 지회를 두고 65세 이상 지역노인들이 자율적으로 친목 도모·취미활동 및 각종 정보교환과 그 밖의 여가활동을 제공하는 장소로 활용되고 있지만 노인복지관이나 경로당 등의 여가프로그램의 활성화와는 달리 몇 년 전까지만 해도 대한노인회는 형식적으로 오고가는 공간으로만 생각되었다. 이러한 대한노인회의 당면 문제점에 대하여 다양한 여가프로그램을 통한 여가시설로서의 활성화 기능을 모색할 필요성이 제시되고 있다.

현재는 지역사회노인들이 취미활동, 오락활동 등을 통하여 단순히 오고가는 교육적인 측면만이 아닌 여가활동 기능, 건강진료, 순회 진료, 건강체조 등을 통하여 여가를 즐길 수 있는 건강 증진 기능, 경제활동을 위한 노인일자리 운영, 지역사회의 발전에 기여하고 봉사할 수 있는 자원봉사클럽활동 등의 다양한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

이처럼 고령의 노인들에게 손쉽게 방문할 수 있고 은퇴와 명예퇴직으로 인한 사회적 역할상실과 풍부한 시간을 여가를 선용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사회적 관계를 증진시켜 노인들의 다양한 지역사회 생활에 잘 적응하며 독립적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노후생활을 해결하는 데 대한노인회가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지만 기존 연구들은 대한노인회 프로그램이 부재했던 상황에서도 노인복지관이나 경로당 활성화방안이나 노인여가참여유형에 따른 효과에 초점을 가지고 있어서 대한노인회의 여가프로그램에 대한 연구는 부족한 실정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광주광역시에 거주하고 있는 지역노인을 대상으로 대한노인회 소속 중 광주에 위치한 광산구, 남구, 북구노인지회의 노인대학에 참여 경험이 있는 이용자를 대상으로 여가프로그램 유형에 따른 만족도가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II. Theoretical background

1. Leisure activities of the elderly

하비커스트(Havighurst)는 여가란 '노후생활에서 일어나는 인간관계의 긴장상태로부터 벗어나서 휴식을 취하고 생활의 균형을 회복하는 의미로서 여가가 필요하며 노인에게는 창조선,

문화성을 발휘할 수 있는 여가활동에 즐겁게 참여함으로써 젊었을 때에 하지 못했던 새로운 경험들에 도전을 시도하는 것이 여가[4]라고 정의하였다.

와이스(Weiss)는 여가란 근무 후의 여유로운 시간을 가장 잘 활용하여 사용하고, 일을 능률적으로 열심히 하기보다는 무엇을 하든지 가치를 부여하고 목표를 세워 최선의 상태에 이를 수 있는 시간을 갖는 것[5]이라고 정의 하였다.

파커(Parker)는 여가의 개념을 다음과 같이 3가지로 정의하고 있다. 첫째, 생활의 총 시간에서 생리적으로 필요한 시간, 노동시간, 노동 이외의 의무시간 등을 제외시킨 잔여시간을 여가라 할 수 있다. 둘째, 노동 이외의 의무시간 등을 제외시킨 잔여 시간동안 여가를 어떻게 보낼 것인가에 대한 여가활동의 내용과 기능을 중시하는 정의이다. 셋째, 여가에 대한 질적인 측면을 중시하여 특정한 가치와 관련시켜 여가활동의 바람직한 모습을 규정하는 규범적 정의[6]가 있다.

노인의 여가활동에 대한 개념을 종합하자면 정신적, 심리적, 육체적 부담으로부터 벗어나, 경제적 또는 사회적 의무행위에 구속되는 시간 외적인 활동[7]으로 볼 수 있다. 여가활동은 노인에게 있어 소외감, 무력감, 무료함으로 오는 정서적인 문제를 극복하고 새로운 역할을 부여하는 계기를 제공할 수 있다는 의미를 지닌다.

2. Type of leisure activities for the elderly

국민연금공단에서 실시한 국민노후보장 패널조사(Korean Retirement and Income Study: KRELS)는 우리나라 중·고령층의 노후 준비 및 노후생활을 지속적으로 파악하여 2005년부터 격년으로 추적 조사하고 있는 종단면조사(Longitudinal Survey)로서 노인의 여가·문화 활동에 대한 정보를 제공해 준다. 그 여가·문화 활동 유형별 참여 실태를 살펴보면 다음표 1[8]과 같다.

Table 1. Participation by type of leisure and cultural activities (unit : %, Time : minute)

division	Participation Rate	Participation time		
		Average	maximum	at least
Listen to TV and listen to the radio	93.3	15:54	6:02	1:00
Sports Participation Activity	32.8	6:42	4:08	0:30
Community activities such as alumni association, old man's dignity, and group meetings	23.9	6:36	2:12	0:30
Religious activity	17.6	4:48	2:16	1:00
Gardening, gardening, pets	15.4	7:30	1:21	0:18
Chess, Go, Fight, Playing cards	10.2	8:42	2:02	1:00
Self-development activities such as participating in the welfare center program,	8.6	8:00	1:16	1:00

reading				
Computer, Internet	3.2	9:06	1:18	1:00
Participation in community service activities and group activities	1.4	5:24	1:02	1:00
Excursions, sightseeing, etc.	1.2	7:00	1:02	1:00
Cultural Arts Observation and Creative Activities (Calligraphy, Buddhism, Dance)	0.9	9:06	1:04	2:00

3. Operation of the Korean Senior Citizens Association

대한노인회는 1969년 경로당 회원을 주축으로 창립된 이후 전국 16개시·도연합회와 1개 직할지회 그리고 244개 시·군·구 지회를 비롯해 64,000여개의 경로당을 포함해 300여만 명의 회원과 8개의 해외지부를 총괄하며, 국가정책의 주요한 고령화 문제와 노인복지 분야 연구를 선도하는 국내 대표 노인단체로 노인의 권익신장과 복지증진 그리고 봉사활동 등을 통하여 사회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이 중 노인대학을 운영 중에 있는데 이를 살펴보면 다음 표2[9]와 같다.

Table 2. Operation of elderly university

division	Senior university
Operational responsibility	Operated under the responsibility of the senior college manager under the supervision of the branch director
Educational Purpose	1.As seniors in the community, 2.They have the ability to adapt to modern society. 3.Redvelop the potential of each elderly person 4.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provide knowledge about health care for the elderly so that the remainder of life can be rewarded.
Training content	1.liberal arts : 30% 2.domestic and foreign situation : 30% 3.acquire intellect : 20% 4.Healthcare and other: 20%
Other contents	(maximum number)The garden is in accordance with the 50 in principle, but circumstances can increase or decrease the number of people. (Completion period)More than 6 months(Training more than once a week) (the entrance qualifications)General seniors and special applicants who have been recommended by the branch, the branch president, and the dean.

4. Concept of life satisfaction and relative theory

삶의 만족도란 노인에게 있어 노화되어 가는 현실에 적응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상태인 삶의 긍정적인 목적이자 '성공적인 노화'의 지표라 할 수 있다.

뉴가르텐(Neugarten)에 따르면, 삶의 만족도란 매일의 생활을 구성하는 활동으로부터 기쁨을 느끼며, 자신의 생활에 대해 의미와 책임감을 느끼고 자신의 목표를 성취하였다고 느껴 긍정적인 자아관념을 갖고 자신이 현재 가지고 있는 약점에도 불구하고 가치 있는 사람으로 자신을 이기고, 낙천적인 감정과 태도를 유지하는 것이라고 정의[10]하였다.

중돈·조주연(2000)은 삶의 만족도의 개념을 사기, 행복, 심리적 안녕의 개념과 상호 교환적으로 사용되지만, 사건이하는 잣대를 적용하여 만족은 과거로 보고 행복은 현재, 사기는 미래와 관련된 개념으로 보았으며, 심리적 안녕상태에 대하여 지속성여부를 적용하여 만족과 사기는 비교적 지속적이고 안정된 인지상태로 보았다. 그리고 행복은 일시적인 정서 상태[11]로 보았다.

이처럼 노인의 삶의 만족에 대한 연구가 지닌 설명력의 제한점들을 극복하고, 이와 더불어 삶의 만족도는 인간 생활의 객관적인 조건과 주관적인 심리상태를 포괄하는 종합적인 개념으로 접근되어야 할 것이다.

5. Advanced research

2016년 01월 02일 현재 노인대학 349개소, 노인지도자대학 12개소의 규모로 운영되고 있는 대한노인회의 노인대학이지만 실질적으로 활성화가 되고 있는지에 대한 연구가 원활하게 진행되고 있지 않은 실정이다.

정명숙(2003)에 의하면 노인의 여가참여정도과 여가만족도에 관한 연구에서 노인들의 여가활동 참여정도과 여가만족도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상관관계를 나타내고 있는데, 여가활동의 참여정도과 높을수록 여가 만족도는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특히 우인교류형 여가활동은 참여정도과 많을수록 여가만족도가 가장 높았다. 또한 노인들의 연령이나, 학력, 배우자유무, 건강상태, 종교유무, 용돈, 가족의 반응과 여가활동 참여정도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상관관계를 나타내고 있다[12].

신철호·손태열(2004)의 운동과 같은 신체적 여가활동이 노인들의 신체, 정신, 정서·사회적 측면에 미치는 효과를 분석한 연구에 의하면, 노인은 신체적 활동을 통해 자신의 삶을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기술과 능력이 증진되어 삶에 대한 통제력이 높아지게 된다[13].

노인의 여가활동의 유형과 삶의 만족도의 관계를 살펴보자면, 노인들은 노인대학, 경로당, 재가노인의 순으로 만족하고 있었는데, 성희자·전보경(2003)의 노인의 여가활동과 생활만족도에 관한 연구에 의하면, 생활만족도가 높을수록 여가활동 프로그램의 필요성을 더 크게 느끼고 있었으며, 특히 문화여가, 사회교육, 봉사활동에서 높게 나타났다[14]. 생활에 의하면 이

들 또한 개인의 주관적 건강상태 및 경제상태에 대한 인식에 따라 건강한 집단 또는 경제상태가 좋은 집단이 그렇지 않은 집단에 비해 생활만족도가 높다고 할 수 있다.

김주현·한경혜(2001)에 의하면 자원봉사활동은 노인들에게 사회적 책임감, 사회적 접촉, 타인의 기대부응, 사회적 인정 등의 효과를 갖게 할 뿐만 아니라 가족들로부터도 긍정적 지지를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15].

이진희·김옥(2008)의 연구에 의하면, 노인교육에 참여한 노인들이 비 참여 노인들에 비해 고독감은 낮게 나타났고, 삶의 만족도는 높게 나타났다. 이 과정에서 인구사회학적 요인 및 노인교육과 심리적 안녕감의 관계를 살펴보면, 노인이 건강하다고 느낄수록, 노인교육에 참여할수록, 종교활동에 참여할 경우, 생활수준이 부유할수록 노인의 삶의 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16]

김순애(2015)의 ‘노인의 여가활동 유형이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연구’에 의하면 노인의 인구학적 특성에 따른 삶의 만족도에 대해 건강상태, 교육수준, 결혼상태, 점유형태, 동거인여부가 삶의 만족도에 영향을 미쳤고, 노인의 여가활동 참여유형에 따른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는 건강 스포츠활동이 유의미한 결과로 나타났다[17].

이와 같이 노인의 삶의 만족에 관한 선행 연구가 단순하게 여가활동 유형과 여가만족, 생활만족, 삶의 질 관계 등의 연구들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며, 노인복지관, 스포츠센터, 경로당 등 일부분에 국한되어 이루어졌고 대한노인회 노인대학의 활성화 방안으로 노인여가프로그램이 적용되고 있는 이후로 여가프로그램을 이용한 참여노인들에 대한 삶의 만족에 대한 측정이 미비한 실정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대한노인회 광주광역시 지회의 여가프로그램을 이용하고 있는 노인의 여가프로그램에 대한 만족도가 노인의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살펴보고 만족도가 높은 여가프로그램에 대하여는 개발하고 확대·보급시켜서 노인의 건강을 증진시키고 노인의 건강을 증진시키고 행복한 삶을 유지시키고 있다.

III. Research methods

1. Research Model

이 연구는 대한노인회 광주광역시 대한노인지회의 여가프로그램 참여유형에 만족도가 삶의 만족도에 어떠한 형태로 나타나고 있는가에 관한 실증연구이다.

이론적 논의를 고찰한 것과 선행연구들에 기초하여 대한노인회에 속한 노인지회의 여가프로그램참여유형에 대한 만족도에 대하여 삶의 만족도의 인과적 관계를 설명하고자 가설을 설정하고 이를 실증분석한 결과를 토대로 결론을 도출하고자 한다.

그림 1은 변수에 대한 이론적 검토와 선행연구를 바탕으로 연구모형을 설정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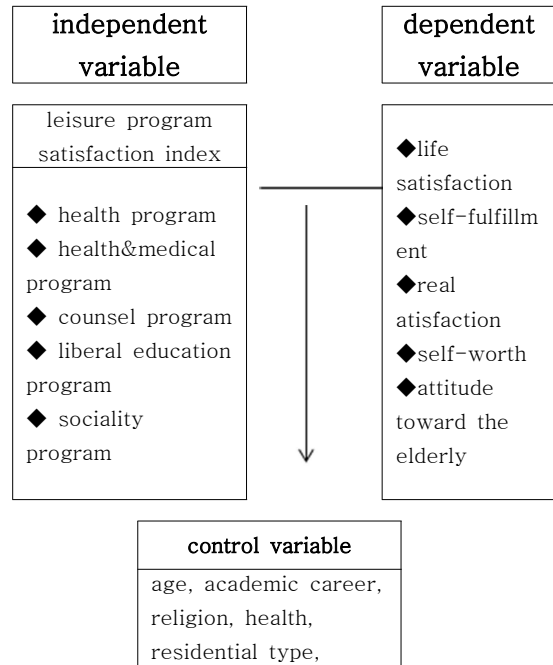


Fig.1. Research Model

2. Research Hypothesis

본 연구의 모형에서는 독립변수로 여가프로그램 만족도를 설정하였고, 통제변수로는 성별, 연령, 학력, 종교, 가구형태, 건강상태를 설정하였으며, 종속변수로서 삶의 만족도 향상을 설정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를 위한 연구 가설은 세 개로 설정되었다. 연구가설은 다음과 같다.

<가설 1> 대한노인회 노인지회 여가프로그램참여 노인들의 인구학적 특성(연령, 학력, 종교, 월소득, 가구형태, 건강상태, 참여정도, 가족과의 관계, 친구와의 관계)에 따라 삶의 만족도(자아성취감, 현실만족감, 자아존중감, 노인에 대한 태도)에 차이가 있을 것이다.

<가설 2> 대한노인회 노인지회 여가프로그램참여유형 만족도가 높을수록 삶의 만족도(자아성취감, 현실만족감, 자아존중감, 노인에 대한 태도)가 높을 것이다.

<가설 3> 대한노인회 노인지회 여가프로그램참여유형 참여도가 높을수록 삶의 만족도(자아성취감, 현실만족감, 자아존중감, 노인에 대한 태도)가 높을 것이다.

3. An object of study

본 연구는 광주지역(광산구, 남구, 북구)에 위치한 대한노인회 노인지회에서 여가프로그램에 참여한 노인들 중 설문참여에 동의하고, 인지손상이 없으며 의사소통이 가능한 노인들을 대상으로 선정하였다. 노인들이 글을 모르거나 노화로 인한 시력의 문제가 있는 노인들은 연구자와 숙련된 설문보조자가 설문내용을 읽어 드리고, 이에 따른 응답을 표기하였으며 2016년

07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 여름방학 기간을 제외한 기산에 설문조사를 하였다. 총120부의 설문지를 배포하여 120부를 회수하였으며 그중 불성실하게 응답한 21 부를 제외한 99부를 실증분석에 활용하였다.

4. Configuration and details of questionnaire.

본 논문은 문헌연구와 조사연구를 병행하였다. 문헌연구로는 노인의 여가활동과 여가프로그램이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등에 관한 문헌고찰과 학술지 및 관련 논문, 각종 통계자료 등을 이용하였다. 조사연구는 대한노인회 노인지회의 노인대학여가프로그램을 파악하고, 노인대학여가프로그램이 노인의 삶의 질에 미치는 영향력을 파악하기 위해 광주광역시에 거주하며 노인지회 노인대학여가프로그램에 참여하는 60세 이상 노인을 대상으로 하였으며, 편의적 표집방법에 의해 표본을 추출하고 설문조사를 통해 자료를 얻었다.

5. Analysis methods

본 연구를 위해 사용한 설문지는 삶의 만족도척도, 인구사회학적 특성, 여가프로그램 만족도(건강/보건·의료/교양·교육/사회교류/사회활동)으로 이루어졌다. 삶의 만족도에 관한 척도는 Neugarten(1961)이 개발한 삶의 만족도 척도 LSI-Z(Life Satisfaction Index-z)를 김현철(2000)이 변안하여 사용한 도구를 이용하였다. 이 도구는 자아성취감 6문항, 현실만족감 5문항, 자아존중감 4문항, 노화에 대한 태도 3문항으로 총 18개 문항으로 재구성하여 사용하였다. 이 척도의 각 항목은 잘모르겠다, 그렇지 않다, 그렇다는 3점 척도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 항목별로 삶의 만족도를 의미하는 척도로 구성되어 있으며, 삶의 만족도를 의미하는 척도에 응답한 경우는 1점, 그렇지 않은 경우는 0점을 부여했다. 각 노인의 삶의 만족도는 각 항목의 점수를 합산한 것으로 0에서부터 18점 범위 내에 속한다. 본 연구에서 조사대상자들의 신뢰계수 Cronbach- α 값이 0.7이상으로서 본 신뢰도는 받아들여기에 충분히 높다고 분석하였다.

본 연구의 자료수집에 사용된 측정도구는 구조화된 설문지로서 노인의 일반적 특성, 여가프로그램, 여가프로그램 만족도, 삶의 만족도로 4가지 영역(자아성취감, 현실만족감, 자아존중감, 노인에 대한 태도)으로 측정하였다.

전체응답자중 남자 13명(13.1%), 여자 86명(86.9%)로 여자 노인들이 월등하게 더 많았다. 연령은 60대가 4명(4.0%), 70세 이상이 95명(96.0%)로 70세이상의 노인들이 더 많았다. 종교 유무는 있음 83명(83.8%), 없음 16명(16.2%)로 대부분 노인들이 종교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학력은 중졸미만이 58명(58.6%), 중졸이상 41명(41.4%)로 중졸이하가 더 많았다. 거주형태를 보면 독거 48명(48.5%), 부부가 같이 거주 32명(32.3%), 결혼한아들과 거주 5명(5.1%), 결혼한딸과 거주 2명(2.0%), 미혼자녀와 거주 7명(7.1%), 기타 5명(5.0%)로 독거노인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주관적인 건강상태는 허약한편 23명(23.3%), 보통이다 55명(55.6%), 건강한편이다 21명(21.2%)로 건강한편이다 보다 허약한편이 더 많았다.

Table 3. Demographic characteristics of the sample

Demographic characteristics	separation	personnel (person)	percentage (%)
sex	man	13	13.1
	woman	86	86.9
age	60 ~ 69 years old	4	4.0
	Over 70 years	95	96.0
religion	have	83	83.8
	none	16	16.2
academic career	Less than middle school graduate	58	58.6
	Middle school graduate or above	41	41.4
living arrangement,	Alone	48	48.5
	couple	32	32.3
	Married son	5	5.1
	Married daughter	2	2.0
	Unmarried child	7	7.1
	Etc	5	5
health	weakness	23	23.3
	usually	55	55.6
	healthy	21	21.2

본 연구대상자의 여가프로그램 참여기간은 [표 4]와 같다. 전체응답자중 여가프로그램 참여기간은 3개월 미만 4명(4.0%), 3개월~6개월 미만 16명(16.2%), 6개월 이상~1년 미만 9명(9.1%), 1년 이상 70명(70.7%)로 많은 노인들이 1년이상 참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가프로그램 참여이유는 건강 59명(59.6%), 대인관계 18명(18.2%), 여가시간활용21명(21.2%), 성취감 1명(1.0%)로 대부분 노인들이 건강을 이유로 여가프로그램에 참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IV. The result

1. Demographic characteristics and participation type of leisure program.

본 연구대상자의 인구학적특성 프로그램 참여도는 [표 3]와 같다.

Table 4. Participation form of leisure program for the elder's college

Leisure program participation type	separation	personnel (person)	percentage (%)
Participation period	Less than 3 months	4	4.0
	More than 3 months ~ Less than 6 months	16	16.2
	More than 6 months ~ Less than 1 year	9	9.1
	More than 1 year	70	70.7
Reason for Participation	health	59	59.6
	human relationship	18	18.2
	Leisure time	21	21.2
	Achievement	1	1.0

본 연구대상자의 여가프로그램 참여유형은 [표 5]과 같다. 여가프로그램참여유형을 보면 건강프로그램451명(26.8%), 보건의료프로그램 388명(23.1%), 교양교육프로그램371명(22.1%), 사회교류 247명(14.7%), 사회활동 224명(13.3%)로 많은 노인들이 건강프로그램이나 보건의료프로그램과 교양교육프로그램에 참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Table 5. Participation type of leisure program for the elder's college

Leisure program participation type	separation	personnel (person)	percentage (%)
health	Elderly yoga	95	26.8
	Health gymnastics	94	
	Song classroom	97	
	Laughter Therapy	95	
	Traditional Music	70	
	a total	451	
health & medical	Health screenings	42	82
	Oriental medicine treatment	27	
	Oral examination	24	
	Physiotherapy	35	
	Eye Examination	32	
	Blood pressure blood glucose check	82	

	Dementia screening	83	23.1
	Depression Scale	63	
	a total	388	
liberal education	Elderly injury prevention training	92	22.1
	Dementia prevention education	93	
	Elderly abuse prevention education	93	
	Health Education	93	
	a total	371	
sociality	Mother's Day Events	41	14.7
	Jungbok receive	26	
	Elderly Day Event picnic	87	
		93	
	a total	247	
social activity	Volunteer activity	29	13.3
	Social activity support business	72	
	Religious activity	91	
	Fellowship activities	32	
	a total	224	
the total		1,681	100

2.. Reliability and validity of questions.

설정된 가설과 모형을 검증하기 위해서 본 연구는 Cronbach's Alpha 계수를 이용하여 신뢰성을 평가하였고, 대부분의 변수들이 0.8을 상회하는 값을 나타내 높은 신뢰성이 확보되었음을 알 수 있다. 가설검증에 앞서 본 연구에 사용된 각 구성개념에 대한 측정항목들의 신뢰성을 검토하기 위해 신뢰도 분석을 실시하였다. 요인으로 추출된 항목들을 중심으로 분석하였으며 결과는 [표6], [표7]에 제시하였다. 신뢰성 검증을 위한 분석은 Cronbach's α 를 사용하였으며, 측정항목들의 Cronbach's α 값이 모두 0.7을 넘고 있어 측정문항들의 신뢰성을 갖추었다고 할 수 있다.

Table 6. Reliability analysis results for the configuration items.

a construct	Item description	Cronbach's- Alpha
Life satisfaction	18 person	.935

본 연구에 사용된 삶의 만족도중 자아성취감, 현실만족감, 자아존중감, 노인에 대한 태도에 대한 타당도검증을 위해 요인분석을 하였다. 고유값이 1이상되는 요인개수를 파악하고 요인적재치가 .40이상인 되는 항목을 선택하였다. 신뢰도검증에서 Cronbach's Alpha 값이 .7이상이면 척도의 신뢰도가 양호한

것으로 해석하였다.

Table 7. Factor analysis result of measurement items

Factor type	Factor item	Factor loading equipment	Percentage of average (AVE)
Self fulfillment	Better off	.832	.728
	Relaxation	.687	
	Miserable	.789	
	happy	.724	
	Be happy	.746	
	Golden age	.592	
Real satisfaction	tedium	.695	.681
	Be fun	.641	
	fun	.643	
	No power	.753	
	satisfaction	.674	
self-worth	Live like now	.673	.666
	Young	.598	
	Planned within 1 year	.725	
	I can not do much	.668	
attitude toward the elderly	I had a hard time	.697	.694
	Lived to your liking	.780	
	It will be harder to live.	.605	

3. hypothesis test

3.1 <가설 1>의 검증

<가설1> 대한노인회 노인지회 여가프로그램참여 노인들의 인구학적 특성(성별, 연령, 종교유무, 학력, 거주형태, 건강상태)에 따라 삶의 만족도(자아성취감, 현실만족감, 자아존중감, 노인에 대한 태도)에 차이가 있을 것이다

Table 8. The gap analysis result of components for.

Demographic characteristic	separation	Average+/_ Standard Deviation		t/F	p. price
age	60 ~ 69 years old	18.000	1.154	1.708	.001
	Over 70 years	14.063	4.493		
religion	have	14.337	4.578	3.435	.694
	none	14.777	2.414		
academic career	Less than middle school graduate	14.000	4.727	1.326	.054

	Middle school graduate or above	15.800	2.833		
living arrangement,	Alone	34.000	8.688	2.043	.076
	couple	31.544	8.333		
	Married son	30.661	9.122		
	Married daughter	40.299	3.933		
	Unmarried child	33.229	11.588		
	Etc	20.000	.		
health	Very Healthy	40.200	5.373	8.360	.000
	healthy	41.336	8.010		
	usually	37.871	7.785		
	weaknesses	30.557	9.449		
	Very fragile	23.762	6.547		

*p<.01, **p<.05, ***p<.001

인구학적 특성에 따른 삶의 만족도의 차이는 종교유무에서는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그러나 연령, 학력, 거주형태나 건강상태는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3.2 <가설 2>의 검증

<가설2> 대한노인회 노인지회 여가프로그램참여유형별 이용 만족도가 높을수록 삶의 만족도(자아성취감, 현실만족감, 자아존중감, 노인에 대한 태도)가 높을 것이다.

대한노인회 노인지회 여가프로그램 참여노인들의 참여이용 만족도가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기 위하여 회귀 분석을 한 결과는 [표9]과 같다. 여가프로그램참여이용만족도가 삶의 만족도에 p<.005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Table 9.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use satisfaction of participation by type and life satisfaction.

independent variable	Non-standardization factor		Standardization factor	t	p
	B	standard error	β		
constant	15.714	1.230		10.801	.000
Satisfaction of participation	.115	.321	.142	1.737	.026
dependent variable: life satisfaction R ² =.188 Adjusted R ² =.120 F=3.956 *p<.01, **p<.05, ***p<.001					

3.3 <가설 3>의 검증

<가설3> 대한노인회 노인지회 여가프로그램참여유형별 참여도가 높을수록 삶의 만족도(자아성취감, 현실만족감, 자아존중감, 노인에 대한 태도)가 높을 것이다.

대한노인회 노인지회 여가프로그램 참여노인들의 참여도가 높을수록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기 위하여 회귀 분석을 한 결과는 [표10]과 같다. 여가프로그램참여도가 삶의 만족도에 $p<.005$ 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Table 10. The relationship between participation by type and life satisfaction.

independent variable	Non-standardization factor		Standardization factor	t	p
	B	standard error	β		
constant	17.092	1.460		11.703	.000
Participation by Type	-.716	.353	-.201	-2.026	.046

dependent variable: life satisfaction
 $R^2=.201$ Adjusted $R^2=.031$ $F=4.103$
 $*p<.01$, $**p<.05$, $***p<.001$

V. Conclusion

본 연구는 광주지역(광산구, 남구, 북구)의 대한노인회 노인지회에서 노인대학 여가프로그램에 참여하는 노인들을 대상으로 여가프로그램이용만족도가 삶의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가를 파악하였으며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1)대한노인회 노인지회 여가프로그램참여 노인들의 인구학적 특성(성별, 연령, 종교유무, 학력, 거주형태, 건강상태)에 따라 삶의 만족도(자아성취감, 현실만족감, 자아존중감, 노인에 대한 태도)에 차이가 나타났다.

2)여가프로그램이용만족도가 높을수록 삶의 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특히, 건강, 보건의료프로그램과 사회교류 프로그램만족도가 높을수록 삶의 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3)여가프로그램참여유형 참여도가 높을수록 삶의 만족도(자아성취감, 현실만족감, 자아존중감, 노인에 대한 태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상에서 노인지회 노인대학 여가프로그램 참여노인들의 주관적 건강상태와 주거유형이 삶의 만족도에서 차이가 나타나 인구학적 특성보다는 개인이 느끼는 건강상태와 주거형태가 삶의 만족도에 중요하므로 노인들의 정기적인 건강검진과 안정적 주거형태유지가 중요하다고 볼 수 있다. 또한, 여가프로그램이

용만족도와 삶의 만족도를 살펴보았을 때 여가프로그램이용만족도가 높을수록 삶의 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특히 건강프로그램과 보건의료프로그램에 대한 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나 향후 건강프로그램과 보건의료프로그램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여가프로그램 참여도가 높을수록 삶의 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기에 프로그램을 활성화 하여 지속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그러나 본 연구는 광주지역의 일부 노인지회 노인대학으로 한정시켰기 때문에 연구결과를 일반화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따라서, 향후 전국 노인지회 노인대학 여가활동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기관이나 단체들을 대상으로 연구와 노인지회를 이용하는 노인들에게 건강과 사회교류를 할 수 있는 다양한 연구들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더불어 노인복지관이나 경로당 여가프로그램 참여 노인들을 대상으로 한 연구는 많이 진행되고 있으나 대한노인회 노인지회에서 운영하는 노인대학과 관련된 세부적인 연구가 필요할 것이다.

REFERENCES

- [1] National Statistical Office. Elderly person statistics, 2015.
- [2] Nam hee Hwang. "An Analysis of the Types of Leisure Activities and Factors Influencing the Korean Elderly", Health and Social Research 34(2), P.61, 2014.
- [3] Kyung Hee Jung. "Life expectancy and welfare needs of baby boomers", Korea Institute for Health and Social Affairs, P.341, 2010.
- [4] R. J. Havighurst. Social roles, Work, Leisure, and Education, (In C. Eisdorfer&M. P. Lawton(Eds)), The psychologie of adult development and aging. Washington, DC:American Psychological Association. PP.598-618, 2010.
- [5] Han byeong Kwak, Leisure culture theory, A King, P.33, 2005.
- [6] S. Parker. The sociology of Leisure(Londen : George Allen & Gbacon). PP.199-213, 1973.
- [7] Eun hee Park "Mediating Effects of Ego-Integrity on the Relationship between leisure activity of Elders and Successful aging - Focused using Senior Welfare Center-", Graduate School of Seoul Christian University Doctoral thesis, P.13, 2016.
- [8] National Pension Service, Elderly the fourth round of national security panel, 2013.
- [9] <http://www.koreapeople.co.kr>. 2016.

- [10] B. L. Neugarten, & R. J. Havighurst, & S. S. Tobin, The Measurement of Life Satisfaction, *Journal of Gerontology*, 16(2), pp.134-143, 1979.
- [11] Jung don Gwon: Suyeon. Cho, "Factors affecting the satisfaction of life in old age", *Korea Geriatrics*, p.62, 2000.
- [12] Myung Sook Jung, "A Study on Leisure Participation and Leisure Satisfaction of the Elderly", Graduate School of Public Administration, Kyonggi University Master's Thesis, pp.63-64, 2003.
- [13] Cheol ho Shin, Tae yul Son, "The Effect of Dance Sports Activity on Female Esculogens and Cerebral Vessels in Elderly Women", *Korean Journal of Physical Education*, pp.405-416, 2004.
- [14] hui ja Seong, bo gyeong Jeon. "A Study on Leisure Activities and Life Satisfaction of the Elderly", *Welfare Administration*, pp.151-169, 2003.
- [15] Jooh yun Kim, Kyung Hye Han, "Elderly volunteer activities and self-esteem, *Korea Geriatrics*, 21(2), pp.209-224, 2001.
- [16] Jin Hee Lee, Wook Kim, "The Effects of Participation in Education for the Elderly on Psychological Well-Being", *Korea Geriatrics*, pp.887-905, 2008.
- [17] Soon Ae Kim, "A Study on the Influence of Leisure Activities of the Elderly on the Satisfaction of Life", Graduate School of Humanities and Information Studies, Korea University, pp.64-79, 2015.

Authors



Myoung-Dong Son received the Doctoral course completion. degrees in Life Environment Welfare Science Department from Chonnam National University. Korea in 2006, 2008, respectively.

He is currently a Professor in the Department of silver care at Kwangju Women's University, and Together-joy Elderly welfare center Steering Committee from 2015 to 2016.



Cheon-Gyu Park received the Ph.D. degrees in Commercial science and Research Division Chung-Ang University, Japan in 1990, 1995, respectively.

Dr. Park currently a Professor in the Department of silver care at Kwangju Dr. Park currently a Professor in the Department of silver care at Kwangju Women's University, and Kwangju Women's University Preventing dementia centre director of the center from 2010 to 2016.